**Imsil Pilbong Gut. Proceeings of Scientific Conference on Imsilpibong.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of Korea.**

**중앙아시아 한인의 정체성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Uniderstanding Korean Identity in Central Asia and their Culture and Art

명순옥

카자흐국립대학교 동방학부

**문화보급과 현지사회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한국과 지역문화의 자부심인 임실 필봉굿 축제를 통해 먼 중앙아시아와의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문화의 힘을 보게 된다. 또한 해외 한국인으로서 임실의 지역 축제 한마당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전세계에 흩어진 한인사회에서 우리 전통문화 전승의 노력은, 자칫 거주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사라질 위기로부터 민족적 구심점을 회복하고 자부심과 정체감을 고양시키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해왔으리라 본다. 이 글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 고려인에 대한 정체성과 이들이 역사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민족성을 보존하려 노력했던 흔적들과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향한 노력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몇가지 고려할 사항과 제안점을 제시하여 향후 해외 한국문화 전수와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전통음악이 전세계인에게 알려지고 우리의 흥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해외 한민족 고려인의 정체성은, 오랜 세월 동안 모국과의 분리된 삶을 산 만큼 한반도의 한인들과는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이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궤적, 그리고 거주사회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혈연적으로 한민족이지만, 소련시대를 거치며 강하게 러시아화되었고, 지금은1991년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독립 이후 오늘날까지 카자흐인이 주도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카자흐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인 문화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도록 한다.

이 글은 레닌기치, 고려일보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또한 저자가 수년간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해왔던 현지조사를 기반으로한다.

**현지에 대한 이해: 카자흐스탄과 카자흐 문화**

카자흐스탄는 남한의 27배나 넒은 땅에 인구는 1700만명 정도이다. 여기에 고려인의 인구는 10만 여명에 달한다. 카자흐스탄은 일찍부터 다문화사회를 이루었고140여 민족이 어울려 사는 곳이다. 구소련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살게 된 것은, 원래 토착민 카자흐족이 살았지만, 러시아 제국주의가 남하하여 영토를 정복하고 점차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이주정책으로 인해 이민족이 살기 시작했다. 소련시대 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세계에서 유래가 없었던 대대적인 이주가 단행되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소련정부는 모든 국경지역의 이민족들이 적국과의 담합을 우려하여 약 65여 개 민족의 수백 만 명을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으로 이주시켰다. 우리 동포 고려인들도 강제이주된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로서 당시 일본과의 대적상태에 있던 소련은, 전쟁 전에 연해주의 고려인들을 잠재적 스파이로 간주하여 극동에서 6000km가 넘는 거리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강제로 흩어놓았던 것이다.

****

(<http://www.mjbnews.com> 2017.7.20)

카자흐스탄은 다민족들이 사는만큼 문화의 색깔도 다양하지만 동시에 문화의 국적성과 민족성을 불문하고 서로 동화되고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소련시대에 강한 러시아화 및 소비에트화로 사회와 문화가 통합되었던 힘으로 중앙아시아의 민족들과 부족 등 지역 토착민의 언어와 전통은 퇴색되어갔다. 1990년대 소련의 패망으로 구 소련지역의 각 공화국들은 독립하게 되어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원래 이 지역 토착민인 카자흐인이 국가의 주도민족이 되었다.

독립 이후 지금까지 25여년간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인 중심으로 언어 및 전통 복구정책을 강하게 시도하며 카자흐 민족국가건설에 매진해왔다. 소련 멸망 이전에 국가의 대표문화로서 교류행사시 러시아문화 중심의 소비에트 문화가 대세였지만 지금은 카자흐스탄의 주류와 대표문화는 카자흐 전통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문화와 전통은 사회의 권력관계에서 부각되거나 퇴색되기도 하지만, 민족문화의 원형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기반한다. 즉, 문화담지자의 역사와 전통은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말해준다. 한민족의 문화와 카자흐 문화적 전통은 그 뿌리에서부터 차이가 크다. 우리의 전통이 농경정착문화에서 비롯되었다면 카자흐 전통은 스텝지역에서 살아왔던 유목문화에서 왔다.

사방이 아득한 지평선, 그리고 굴곡없이 펼쳐진 초원평지에 말을 타고 혼자 수십 혹은 수 백마리의 소와 양떼를 몰고 하루 종일 그 외로움을 자연과 함께 달래는 카자흐인을 상상해보자.



유목민의 생활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곳에 몇일 만에 어쩌다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는가. 카자흐인의 문화적 코드로서 환대와 관용은 여기서 나왔다. 이때 만난 사람은 적어도 몇 일은 먹여주고 재워주며 대화상대가 되는 것이 기본 예의이다. 이것은 카자흐인이 경조사를 맞았을때 푸짐한 상차림과 환대로서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이 베여 나타난다.

소련시대 농업화, 도시화, 산업화는 토착민 카자흐인의 유목문화의 흐름을 크게 돌려 놓았다. 1920낸대 말 소련의 농업집단화정책은, 유목민들의 발을 묶고 정착을 강요하며 그들의 먹거리며 재산이었던 가축들을 몰수하였고, 이후1930년대 대기아를 맞아 희생되거나 이웃나라로 떠난 카자흐인이 수백 만에 이른다. 오늘날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수많은 카자흐인은 그때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소비에트시대의 영향으로 카자흐인은 계절따라 이동하는 전통적 개념의 유목은 사라졌고, 초원지역에 마을을 이루어 정착하며 목축생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기르는 가축의 고기, 유제품, 그리고 빵을 주식으로 하고있다. 단지 소련시대의 집단농장의 영향으로 지금은 가가호호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어 기본 식단을 보충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농사를 본업으로 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카자흐스탄과 토착민에 대해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짦게 살펴봄으로써 고려인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거주사회에 대해 대략적이나마 알아보았고, 이제는 고려인의 역사와 고려극장을 중심으로한 문화적 발자취를 보고자 한다.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의 전승**

중앙아시아의 한인은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려져 왔다. 과거에는 조선인, 조선사람으로 불려졌지만 지금은 한국사람 입장에서는 고려인이라 부르지만, 고려인 자신들은 구소련의 각 공화국 독립 이후 스스로 고려사람이라 통일하여 부르고 있다.



고려인 돕기 운동본부(2007)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세부류의 고려인 집단이 있다. 고려인의 주류를 이루는 집단은 1937년과 1938년에 강제이주된 **연해주 출신**이다. 이들은 조선말기 사회혼란과 일본의 침략으로 주로 함경도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지금의 연해주 땅을 개척했던 사람들이다. 농사를 지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 국경을 넘기도 했지만 한반도 내에서는 일본의 통제로 독립투쟁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의식있는 지식인들도 해외투쟁의 거점으로서 블라디보스톡 지역에 자리잡게 되었다. 많은 민족 지식인과 자본가, 항일 독립운동가 등 민족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민족신문과 수많은 민족학교를 세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족문화의 꽃을 피웠다. 연해주 출신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20년대 연해주의 급속한 소비에트화가 진행되었고, 급기야 극동에서의 일본의 호전성에 소련은 전쟁을 앞두고 연해주 고려인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이주명령을 내렸다.

두번째 집단은 소수집단인 **사할린 출신**으로 일제 치하에서 2차세계대전 전부터 경상도 전라도 등 한반도 남부 사람들이 노동자로 징용된 한인들이다. 일본이 패전이후 남사할린은 소련이 차지하게 되고 일본군과 일본인은 철수했지만 남은 한인들은 귀향하지 못한채 그대로 남게 되었다. 결국 소련 공민이 되어 더 나은 교육과 직장을 위해 젊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 대륙으로 나오게 되었다. 사할린 출신이 연해주 출신과 다른점은 연해주 출신이 스탈린 치하에서 1937년 이후 혹독한 탄압과 강제이주를 겪어면서 빠른 소비에트화에 진입하였던 반면 사할린 출신은 한인 집단적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민족언어와 전통을 오래동안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70년대 80년대부터 사할린출신 지식인들이 모국어를 완전하게 구사할 수 있었기에 작가로서 그리고 신문편집인으로서 레닌기치나 고려극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에 연해주 출신은 모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고 이미 모국어 세대는 러시어어가 모국어가 되어버린 새로운 세대로 교체된 상태였다. 지금은 사할린 출신도 모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세번째 극소수를 이루는 고려인 집단은 **북한출신**이다. 북한 출신은 소련지역에서 노무자(주로 시베리아 벌목공)로 일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북한 출신 모스크바 유학생들이었다. 스탈린 사후 1950년대 말 후르시쵸프 시대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에 대한 비판과 북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이 공식적으로 나옴으로써 당시 모스크바 북한 유학생 10명도 김일성 비판에 합류함으로써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소련에 남게 되었다. 이들은 음악이나 영화를 전공했던 엘리트 예술인과 작가로서 고려인 문화와 예술에 지대한 족적을 남겼다.

러시아 지역 이주민으로서 처우가 열악하고 차별적 조건 특히 농토배정과 국적을 받는데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동시에 독립군으로 일본과 항전하였고 연해주 지역내에서 강제이주를 당하며 희생되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연해주에서 한인문화는 한인 집단촌을 형성하고 민족적 단결력을 발휘해서 신문사와 학교 등의 우리글의 미디어와 문학 교재가 활성화되었고, 극단도 형성되었다.

1922년 러시아 내전이 종식되고 극동은 급격한 소비에트화가 진전되었고, 항일 독립군들은 소비에트혁명군으로 편입되어야 했다. 이미 한반도는 일본식민지하에 들어가 있었고 한반도의 거국적 독립운동도 실패함으로써 해외 독립운동의 기세가 점점 꺾여나갔고, 소련도 일본을 자극하는 항일 한인 독립군부대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없었고, 소련은 한인들을 혁명군으로 변신하게 하여 더 이상 민족적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다. 1937년에 시작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를 전후로 무자비한 고려인 지식인의 탄압과 함께 민족문화가 말살되기에 이른다. 새로운 이주지역에서 더 이상 모국어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러시아어로 개명을 했으며 민족서적들을 불살라야했고, 어떠한 민족적 색깔도 드러낼 수 없는 공포의 사회였다.

이러한 민족탄압 속에서도 연해주 선봉에 이어 중앙아시아에서는 레닌기치라는 이름으로 민족신문이 유지될 수 있었고, 조선극장도 활동하였다. 이것은 소련권력의 민족예술의 우대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 선전이라는 중요한 역할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

1920년대 연해주 신한촌의 아마추어 소인 예술단의 창립을 시작으로 1928년 유학파가 결성한 노동자 청년극장에 이어 1932년에는 전문 예술인이 주도한 원동 조선극장의 설립되었다. 도래민족 극장의 존립은 소비에트 권력의 장려책과 맥을 같이 하였고 그 목적은1) 예술 장려를 통한 소수민족 관리 2) 공산주의 이념 선전 3) 사회주의 혁명 정신 고취 4) 집단농장의 생산량 증대에 있었고, 노래 후렴구에는 공산주의 체제와 이념을 찬양하는 내용이 의례적으로 삽입되었다.

고려인 사회에서 문화예술의 계승과 보급을 위해 변신을 거듭하며 노력했던 조선극장(고려극장)의 흔적과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20년 신한촌 구락부 아마추어 소인예술단

1923년 3월 1일 한인 신문 « 선봉» , 적백 내전 종식, 본격적 소비에트화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공산당 산하 연해도 간부회

민족주의, 사회주의에서 점차 사회주의 방향으로 전환

1928년 블라디보스톡 노동자 청년극장 (모스크바 유학파)

1932년 원동변강 조선극장, 최초 해외 이동극장 (이길수, 연성용, 채영, 최봉도, 리함덕)

1937년 크즐오르다 조선극장

민족학교 폐지, 소련일반학교로 변경, 민족자료 소멸

1942년 우슈토베, 타쉬겐트로 분할

1950년 우슈토베 고려극장으로 통합

1955년 공민지위 인정, 순회공연 가능

1959년 크즐오르다로 이전, 주립극장 지위격상

1966년1968년 국립극장으로 승격 (알마티), 아리랑 가무단 창설

1970년 북한 출신들의 맹활약 (작가 한진, 연출가겸 극작가 맹동욱)

신인배우- 모국어 문제 심각

1985년 연극 중심에서 무용, 음악의 비중 증가 (고르바초프시대 개혁개방의 물결)

모국어 못하는 가수, 배우 늘어 관객 감소

1986년 고려극장 존립문제, 단원, 공연 감소

젤톡산 사태, 소련재정 파탄

1988년 서울올림픽, 교류의 여건 조성

1990년 고려인 협회 창립, 고려극장 지원, 모둔 문화예술기관 폐쇄 위기

구 소련 중공업 위주의 경제기반 무너지고 시장경제체제 준비 미비

1991년 알마티 한국교육원, 건물내 고려극장

1992년 한국대사관 개설

1992년 고려극장 창립 60주년, 극장단원 월급인상, 한국과 교류활발

카자흐스탄 유엔가입

1994년 우슈토베 고려문화대축전

1990년대 고려극장 이전문제, 정부에 건물배정 요청, 지금의 고려극장 배정

1999년 국가지원의 어려움, 고려인 협회의 지원

2000년 정부의 상업기관으로 승격, 2002년 고려극장 재건

현재 연극단, 성악단, 무용단, 사물놀이팀 총 단원 90여 명 활동.

조선극장(고려극장)은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받는 설움과 외로움을 달래고, 탄압과 희생의 고통 속에서도 민족의 온기를 느끼며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고단한 집단농장의 생활에서 순회공연은 마을의 축제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려인 문화와 예술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모국어 상실이다. 앞서 고려인의 언어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지만, 예술인의 경우도 세대교체가 일어날수록 모국어의 힘은 약해져 갔다. 1960년대 모국어가 약한 고려극장의 2세대 배우들이 등장에 이어 70년대의 신인배우의 모국어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모국어를 못하는 예술가, 감독, 극장장, 심지어 모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관객도 늘어났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전의 대본이 북한식 고려말이었다면1990년대 이후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한국어 대본이 늘어나 그나마 고려말에 익숙한 관객들의 불평도 있었다. 지금은 민족어 대사를 구사하고 러시아어로 동시통역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의 표현은 민족의 형식을 갖추고 고려인에게 모국어가 되어 버린 러시아어로 통역이 불가피한 것이다.

고려인의 언어적 동화는 타지의 사회구조와 권력 등의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기의 불가피한 선택에서 출발하였다. 큰 시련 가운데서도 피와 땀으로 예술로서 민족혼의 명맥을 유지해왔고, 그 사회에서 민족의 대표성을 띠는 문화예술로서 자리를 굳혀온 역량발휘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앞으로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고 현재의 문제점을 깊이 통찰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해외 문화보급을 위한 현지 고려사항**

최근 한류보급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문화흐름의 일방성과 과도한 시장논리에 매여있다는 것이다. 각국마다 문화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국의 전통문화의 위축을 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폐쇄적 전략을 취하고, 반한 및 혐한의 담론도 가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카자흐스탄에서의 우리의 전통농악의 보급이 지속화되고 깊이 확산되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려인과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지의 문화와 전략들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 문화정책과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 등의 여러 현실들을 감안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오랜기간 이민족 지배하에 있던 카자흐 전통문화에 대한 강한 복구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화되고 위축되었던 자문화 복구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국가 대표 예술단은 소비에트 예술단이었겠지만 지금도 복장도 노래도 모든 것이 카자흐어와 카자흐식 대표단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축제를 위해 교류차원에서 초청된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립악단을 보면 알 수 있다. 과거 차별과 상처로부터 이제는 카자흐 언어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우수성을 전략적으로 드러내고 확대하고 있다.

**둘째,**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국가어가 러시아어에서 카자흐어의 변경되었다. 카자흐 전통회복정책에서 가장 일순위는 카자흐 언어의 회복이었다. 소련시대 모든 민족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했지만, 새로운 세대는 카자흐어를 학교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배우고 모든 공적기관에 국가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 아직 공적 언어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으나 카자흐어를 해야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게 현실이다. 즉, 언어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고, 이것은 사회통합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언어적으로 러시아화된 카자흐 지식인들은 이제 카자흐어 문제로 차별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러시아 문화가 보편화되었고 오랫동안 주류문화로 자리잡아왔기 때문에 토착민 문화와 언어가 무시되었고, 그런 만큼 지금의 카자흐인에게는 반러시아 감정도 지니고 있다.

**세째**,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을 보면 최대의 존중을 표하고 우대한다. 이것은 과거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만큼 반동적으로 카자흐어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특별대우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내의 다른 민족이 카자흐어를 해도 방송에 출연하거나 그만한 존경을 받는다. 상대의 문화의 과거와 상처를 이해하고 관심과 존중, 그리고 배우는 태도로서 깊은 교감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째**, 고려인의 카자흐인과의 관계는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편이다. 고려인이 강제이주 당했을 때 카자흐땅에서 버려지고 죽어가는 고려인에게 빵과 말젓을 주었고, 헛간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고려인은 카자흐인에 대한 큰 은혜로 간주하고 있다. 고려인은 현지 사회에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짓는 근면성을 높히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소련시대 고려인은 카자흐인과 같이 피지배당했던 이등민족으로서 같은 처지에 있었던 연민이 서로 작용하기도 했다.

**다섯째**, 우리의 농경문화의 전통이 카자흐의 유목문화가 아주 상이하지만, 반면 공통점도 적지 않다. 언어적으로 한국어와 카자흐어는 알타이어계여서 유사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서로 상대어를 공부하면 어순이 같은 장점으로 빨리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카자흐인을 비롯한 터키, 중앙아시아의 민족들은 역사적으로 혼혈되었지만 공통의 투르크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한반도에서 신라시대 기마 유물과 유적을 통해 우리 민족이 고대 투르크의 조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혈연적, 집단적이고 위계적 사회였다. 카자흐인의 경우 강한 혈연중심의 위계문화와 어른문화가 아직도 살아있다. 카자흐인에게 우리의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있는 이유 중 하나로 이러한 공통의 정서를 느끼기 때문이다. 서로의 이질성을 이해하고 공통점을 발견하며 문화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면 서로에 대한 교감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결언**

문화보급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세우고 현지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해외 문화전수와 보급의 지속성이 유지되려면 자문화에 대한 열정 만큼이나 상대문화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하고, 소통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소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지속적으로 울려퍼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종하며 어울림과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글은 카자흐스탄 지역에서의 우리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에 주안점을 두고 고려인 문화와 예술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토착민 카자흐인에 대해 살펴보면서 지역적 고려사항을 몇가지 제안하였다.

한국의 중요한 무형문화재이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임실 필봉 농악의 경우 해외 한국문화 전수에 앞장서며, 고려인을 비롯한 카자흐스탄의 젊은이들에게 체험하고 배우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이것은 한국 전통음악이 카자흐스탄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중요한 출발이요, 전수받는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고 기회이다. 최근 몇년간 필봉농악이 연례적으로 카자흐스탄 국립대 동방학부와 고려극장, 문화센터에서 특별과정이 운영되어왔다. 국립대의 경우 과정참여 학생은 학점과 수료증이 부여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리듬으로 학부나 학과 행사장에서 그동안 배웠던 실력을 뽐내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 그동안 문화재청의 지원 하에 양진환 선생님을 비롯한 필봉 농악 전수팀의 카자흐스탄에서 쏟아낸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임실필봉 농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지속적으로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나아가 한카의 성숙한 문화적 공감대가 무르익기를 기대한다.